

남원제일고 '팀 cook' 20~21일 전주서 레스토랑 운영



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특성화고 미래학교 사업 중 학교의 지역거점 역할 프로그램 중 하나로 'n-first'는 남원제일고이다.

'남술령'은 남원의 미술관을 상징한다.

이에 이 학교 조리제빵과 학생들은 스포와 식전빵 전체 요리, 메인요리, 디저트, 커피와 차 순서의 서양 코스요리를 판매했다.

네 번째 레스토랑 운영에 도전하는 '팀 cook'는 이번에는 특별히 남원이 아닌 전주 효자동 마리아주 레스토랑을 대관했다.

특히 학생들은 메뉴 선정부터 재료발주, 메뉴판 제작과 홍보, 요리, 고객 응대까지 직접 함으로써, 실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경험을 했다.

한편 2022년부터 프랑스 5코스 요리, 한정식 팝업 카페를 운영, 매회 매진의 기록을 세웠다. 레스토랑 운영 수익금은 참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김현태 교장은 "레스토랑 운영을 거듭할수록 조리제빵과 학생들의 태도가 적극적이고 진지해져 학교도 에너지가 넘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학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남원의료원, 비전 선포식 진행

남원의료원은 최근 의료원 내에서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맞춘 것으로, 원장, 임직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진규 원장의 인사말과 함께 "공백없는 필수의료, 따뜻한 공공의료, 함께하는 의료원"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현재 남원의료원은 노인 인구와 취약 계층이 높은 지역인 남원시, 임실군 등 3도 7개 시군을 진료권역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비전을 설정. 공백없는 필수의료로 지역주민의 골든 타임을 지키고 취약지역 계층에게 따뜻하고 배려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의료의 의미를 실천할 예정이다.

한편 오진규 원장은 "양질의 의료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임직원도 만족할 수 있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료원,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남원의료원은 지난 18일, 본관 앞 택시 승강장에서 직원과 내원객을 대상으로 2024년 동절기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남원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협조 요청으로 매년 동절기와 하절기 2회 이상 꾸준한 헌혈운동을 직원들이 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헌혈 운동은 고령화, 인구 감소에 따른 헌혈 참여율 저조 및 혈액 보유량 부족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진행된 사랑의 헌혈이다.

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은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 직원 및 내원객의 자발적인 헌혈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헌혈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 반딧불배 스키·스노보드대회 성공 개최 기원'

대회 성공 기원 초청음악회 성료…통기타 가수 백영주·이태원, 바리톤 석상근·소프라노 송난영 출연

제10회 무주 반딧불배 스키·스노보드대회 성공 개최 축하 초청음악회가 지난 17일 무주 덕유산리조트 내 만선 카페테리아 2층 홀에서 관객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초청음악회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열렸으며, 개회식과 함께 병행해 진행됐다.

초청음악회는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인 김생기 나래코리아 대표가 출연해 만선 카페테리아 내에 위치한 만선 카페테리아 2층에서 열린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초청음악회에서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와 소프라노 송난영씨, 바리톤 석상근씨가 무대 위에 올라자 자신의 노래인 티조고니, 솔개 등을 불렀다.

우리나라 대표 성악가로 잘 알려진 바리톤 석상근씨가 무대 위에 올라 개회식장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음악회에서는 통기타 가수인 백영주씨와 이태원씨,

바리톤 석상근씨와 소프라노 송난영씨가 무대 위에 올



지난 17일 무주 덕유산리조트 내에 위치한 만선 카페테리아 2층에서 열린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초청음악회에서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와 소프라노 송난영씨, 바리톤 석상근씨가 무대 위에 올라자 자신의 노래인 티조고니, 솔개 등을 불렀다.

우리나라 대표 성악가로 잘 알려진 바리톤 석상근씨가 무대 위에 올라 개회식장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음악회에서는 통기타 가수인 백영주씨와 이태원씨,

바리톤 석상근씨와 소프라노 송난영씨가 무대 위에 올

라 열띤 공연을 펼쳤다.

이날 백영주씨가 가장 먼저 무대 위에 올라 70년대와 80년대 히트곡을 열창했다.

이어 조류와 관련된 곡들로 유명한 이태원씨가 무대 위에 올라 자신의 노래인 티조고니, 솔개 등을 불렀다.

우리나라 대표 성악가로 잘 알려진 바리톤 석상근씨가 무대 위에 올라 개회식장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소프라노 송난영씨가 무대 위에서 열띤 무대를 벌여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초청음악회는 두 성악가들의 합동 무대로 마무리됐다.

/김재훈 기자



남원 곳곳 희망2024 나눔캠페인 동참 잇따라

남원시는 '희망2024 나눔캠페인'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며, 미륵암·연화사에서 백미 10kg 150포, 유원스포츠·신일상사에서 패딩점퍼 80벌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연화사 도률스님, 미륵암 혜신스님은 매년 백미 기부를 통해 꾸준한 지역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유원스포츠·신일상사도 패딩점퍼 및 실내 운동화 기부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독립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연화사 도률스님과 미륵암 혜신스님은 "우리의 정성이 남원시 전 지역이며, 최경식 남원시장은 '매년 정성을 모아 백미 기부해 주시는 연화사와 미륵암 스님, 유원스포츠와 신일상사에 감사를 전한다며, 올겨울은 아주 따뜻할 것 같다"고 전했다.

기탁된 물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신년회 개최

무주군은 19일 무주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규평) 신년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 사회복지의 발전을 기원하고 새로운 도약과 화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횡인홍 무주군수와 이양희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과 관내 사회복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횡인홍 무주군수는 "주민 행복을 위한 현장에서 땀 흘리며 아쓰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올해는 좀처럼 안전망이 확보된 사회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만큼 함께 밟춰 나가자"라고 밝혔다.

이어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으로 생활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든든한 기본 위에 바로 서 무주군은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는데 매진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확고히 했다.

이규평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무주군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단체와 협력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다.

한편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는 20개 단체, 4백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해마다 '차운나눔' 성금모금 운동을 전개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관내 복지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의료·난방비 지원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상록골프장,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남원시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희망2024 나눔캠페인'이 갑진나라도 따뜻한 남원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계속되고 있는데, 남원상록골프장이 이웃돕기 성금 2백만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더했다.

상록골프장은 물품 및 성금 기탁 등 지속적인 기부활동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열대문 골프장 대표는 "한파와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때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해 기탁하게 되었다"고 전했으며,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성금은 꼭 필요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완산소방서, 화재예방 교육·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지난 18일 '삼천동 정동마을'을 찾아 화재취약계층인 노년층을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 실시 및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내어 신속한 대피를 돋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이번 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에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화재의 예방과 자율적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아울러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및 대피요령 등을 교육했다.

박경수 전주완산소방서 서장은 "안전 사각지대의 발생 없이 주민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내실 있는 화재 예방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무주군, 이웃돕기 성금 & 장학금 기탁 줄이어

무주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고 용기를 북돋워 주리는 나눔의 순길들이 줄을 잇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19일 무풍면 서정덕 어르신과 안성면 두문마을 낙화놀이보존회 회원들 그리고 김성용 무주읍 신당 산마을이장 및 무주읍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주군을 찾아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금 등을 기탁했다.

이날 장학금으로 7백만 원, 이웃돕기 성금으로 3백만 원을 전달해온 서정덕 어르신(91세)은 "고향에서 농사짓고 살면서 형편이 크게 끌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들 모두 서울에서 공부시키고 걱정없이 살았다"라며 "제2는 고향 무풍에 보탬이 되고 또 어린 학생들 공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에서 번 돈을 모아서 기탁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또 두문마을 낙화놀이보존회 회원들과 함께 무주군은 찾은 박길원 회장은 "낙화놀이 외부 행사 수익 중 일부를 안성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는데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을 지키고 사랑하는 데 앞장서 지역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빛내고 이웃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낙화놀이보존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면 낙화놀이보존회에서는 지난해에도 장학금으로 1백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김성용 무주읍 신당 산마을이장 및 무주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사회발전과 이웃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더 큰 나눔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김성용 이장은 2022년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 2023년에는 장학금 1백만 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마을주민들이 폐 건강을 증진하고 올바른 금연 인식으로 금연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푸른산업, 남원 도통동에 두유 100상자 기탁

남원시 도통동 관계자는 지난 18일, 푸른산업(대표 문희정)에서 두유 100상자(150만원 상당)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푸른산업은 지난 수년 동안 지역이동센터, 노인복지기관 등에 성금품을 기탁해 왔고 올해 처음으로 도통동에 기탁했으며, 이날 기탁된 두유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푸른산업 대표는 "지역에서 살림과 물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간편한 영양 보충 식품으로 유용하게 잘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김윤자 도통동장은 "미음을 배풀어 주신 푸른산업에 감사드린다며, 이웃이 전하는 따뜻한 손길은 사회적 대상자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